

[매일경제]한국 창조경제, 中자금·경험 활용하세요

"한국 창조경제, 中자금·경험 활용하세요"

칭화대서 시작해 자산 14 조 거대그룹된 `칭화홀딩스` 쉬징홍 대표

中 2006 년부터 `창신경제` 정부 앞장서 벤처자금 육성

공장·기술·자본 함께 유치

"창조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중국의 벤처캐피털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세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도 중국 자금을 가져가는데 왜한국은 안 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내용의 `창신경제`를 이미 2006 년부터 국가 어젠더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칭화홀딩스는 중국 명문 칭화대학의 산학연 기업집단으로서 현재 총자산은 800 억위안(약 14 조원)에 달하며 100 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중 칭화과기원(STP)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의 핵으로서 1994 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용지 25 만ha, 건축면적 69 만㎡에 달하는, 세계에서 단일체로 제일 규모가 큰 과학기술연구단지로 발전했다.

중관춘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칭화대학의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칭화홀딩스`를 이끌고 있는 쉬징홍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19 일 저녁 건국대 앞 더클래식 500 호텔 숙소에서 만난 쉬징홍 대표는 "중국이 기술 혁신, 지식재산권 두 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창신경제와한국의 창조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혁신의 핵심인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체제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군요.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벤처캐피털 규모의 확장도 꼭 필요한데 중국은 창업자들이 벤처캐피털 지원을 받을 기회가 풍부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외에서 벤처 자금을 키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이 적어도 벤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벤처캐피털 규모도 작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중국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과 자본까지 함께 투자받기 위해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 정부가 만든 하이테크 개발구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벤처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이테크개발구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서는 국내외 기업들에 모두 첫 3년 세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후 3년 동안에도 법인세는 일반 기업의 절반 수준인 15%만 내면 된다.

단 개발구에는 외국 기업들이 직접 들어오는 대신 중국 국내기업 투자를 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금 혜택 외에 정부의무상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자본이 25%를 넘어서면 안 되고, 기술특허는 반드시 중국 기업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보호장치도 꼼꼼하게 마련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면 서방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의 벤처캐피털자본에

도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라고 쉬징홍 대표는 조언했다.

그는 "옛날처럼 공장 짓고 값싼 노동력만 활용하는 중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중국은 벤처캐피털 자금이 매우 풍부하다"며 "실리콘밸리의 투자만 받던 칭화홀딩스도 얼마 전 실리콘밸리에 건물을 사 벤처 창업 인큐베이션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기업 간 협력이 국제정치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리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관 기자]